

법과사회이론학회 제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법과 사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묻다!

'법과 사회'이론 연구회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법문화의 창달을 위해 소장 학자와 실무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1987년 초에 결성된 학술연구단체입니다. 본 연구회는 기존 법학이 지녀온 현실도피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우리의 구체적 법현실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법학, 억압적·권위적 법문화를 청산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규범질서를 모색하는 법학, 학계와 실무전문가와 대중 사이에 두텁게 가로놓여 있는 담벽을 열고 지적 토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대중과 함께하는 법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법과사회'이론 연구회는 현재 4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전공의 제한 없이 교수, 판사, 변호사, 석박사과정의 학생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직결된 제반 법적 문제점들을 정례적으로 열리는 월례발표회에서 집중토론하며, 공개토론회의 장을 통해 대중적인 만남을 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의 연구와 토론의 성과는 부정기간행물 <법과 사회> 및 기타 간행물을 통해 발표됩니다. 현재는 연구자 중심의 모임을 갖고 있지만 본 연구회와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여러분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학운동과 민주적 법실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법과 사회> 창간호(1989년 8월 5일) 중에서

- 일시: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0분
-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최: 법과사회이론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SSK 사회진보와 공화적 공존연구단

모 시 는 금

올해로 창립 제30주년을 맞는 법과사회이론학회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학술대회의 장에 여러 선생님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동안 법과 사회의 학술활동이 사회영역보다는 국가영역의 합리화에 치중한 면이 있다는 성찰에 따라 사회영역의 중심과제인 노동과 복지의 과제에 천착한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와 법질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근본적으로 성찰해 보기 위한 자리를 '사회변동과 법: 노동·복지의 미래' 라는 주제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로 사회구조와 개혁방향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기치 속에 우리 학회도 나름의 역할을 해 보고자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작금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의 변동은 다시금 우리에게 근본적 성찰의 필요성을 던져주는 듯 합니다. 더군다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사회개혁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구조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각도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창립 제30주년을 맞아 학회의 법과사회운동이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우리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해 보기 위한 장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회가 지난 30년간 과연 법제도 현실의 개혁에 있어, 법과 사회 연구의 방법론에 있어, 그리고 기초법 학술단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했는지 다층적으로 돌아보게 될 것이며,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미래를 성찰해 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원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학회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를 기록하는 시간 역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30년간 우리 학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다각도록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법과사회운동이 가지는 의의를 공유하며 그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같이 참석하시어 머리를 맞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법과사회이론학회 제30주년 기념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김 중 철

프로그래

법과사회이론학회 제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법과 사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묻다!”

□ 개회식 (10:00-10:10)

- 개회사: 김중철(법과사회이론학회장, SSK 사회진보와 공화적 공존연구단장, 연세대)
- 축사: 이철우(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축사: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서강대)

□ 제1부 (10:10-12:30) 사회변동과 법: 노동·복지의 미래

- * 사회: 이계일(연구이사, 원광대)
- 제1주제 (10:10-10:5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 역할과 한계
 - 발표: 김민표(한국노총 중앙법률원)
 - 토론: 도재형(이화여대 법전원)
- 제2주제 (10:45-11:25) 탈노동으로서의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 발표: 서정희(군산대 사회복지학과)·백승호(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 토론: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 휴식 (11:25-11:35)
 - * 사회: 윤성현(연구이사, 한양대)
- 제3주제 (11:35-12:10) 현시기 일자리 정책 담론에 대한 근본적 성찰
 - 발표: 이승욱(이화여대 법전원)
 - 토론: 김주영(명지대 법과대학)
- 종합토론 (12:10-12:30)

□ 점심식사 (12:30-14:00)

□ 제2부 (14:00-18:00) 법과사회이론학회 30년을 돌아보며

- * 사회: 황성기(부회장, 한양대)
- 기조강연 (14:00-14:30) 법학의 길, 나의 길
 - 강연자: 양 건(법과사회이론연구회 초대회장)
- 주제발표 (14:30-15:45) 법과 사회의 지나온 과거와 미래상
 - 발표: 황승흠(국민대)·심우민(경인교대)
 - 토론: 이철우(연세대), 이국운(한동대), 신동룡(강원대), 홍성수(숙명여대)
- 휴식 (15:45-16:00)
- 라운드테이블 (16:00-18:00) 법과사회와 사법개혁
 - 사회: 홍준형(고문, 서울대)
 - 발제: 한인섭(고문, 서울대)
 - 토론: 김재원(고문, 성균관대), 한상희(고문, 건국대), 김창록(고문, 경북대), 이현환(고문, 아주대), 임지봉(부회장, 서강대), 양천수(부회장, 영남대)

□ 폐회식 (18:00-18:10)

- 폐회사: 김중철 (법과사회이론학회장, 연세대)

□ 만찬

<행사장소 안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학회 공지사항>

- 우리 학회 학술지 <법과사회>가 한국연구재단 2017년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등재지" 유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학회지 발간이 종전 2회에서 3회(4월, 8월, 12월 말)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투고 하실 분들은 추후 진행될 원고모집공지에 따라 간행예정일 1개월 전까지 법과사회이론학회(lawandsociety@hanmail.net)로 원고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더불어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나 필자에 한해 학회지 <법과사회>를 배송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학회의 재정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회비를 꼭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개인회원 50,000원, 단체회원 70,000원(1부 추가당 30,000원), 평생회원 500,000원
 - 계좌번호: 우체국 012492-01-003831 (예금주: 법과사회이론학회)